

2024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2024. 4. 9.(화) 7pm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지휘 데이비드 이(서울시향 부지휘자)
진행 배순탁(음악 평론가)



서울시립교향악단 X LG아트센터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뮤지엄
콘서트

2024 MUSEUM CONCERT



2024 뮤지엄 콘서트 5월 공연 일정

- 5.21.(화) 12:00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앞마당
- 5.22.(수) 12:00 서울공예박물관 안내동
- 5.22.(수) 19:00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안마당
- 5.23.(목) 12:00 한성백제박물관 로비
- 5.23.(목) 19:00 한성백제박물관 로비
- 5.24.(금) 19: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별관

2024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2024. 4. 9.(화) 오후 7:00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지휘 데이비드 이(서울시향 부지휘자) 해설 배순탁(음악 평론가)

한스 짐머
Hans Zimmer

<다크 나이트> 중 '다크 나이트' 모음곡 (공동작곡 제임스 뉴튼 하워드)
The Dark Knight Suite from <The Dark Knight> (Co-composer James Newton Howard)

<인셉션> 중 '타임'
Time from <Inception>

클라우스 바델트
Klaus Badelt

<캐리비안의 해적> 중 '블랙 펄의 저주' 모음곡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Suite from <Pirates of the Caribbean>

히사이시 조
Joe Hisaishi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교향적 변주곡
Symphonic Variation Merry-Go-Round from <Howl's Moving Castle>

<마녀 배달부 키키> 중 '바다가 보이는 마을'
A Town with an Ocean View from <Kiki's Delivery Service>

<이웃집 토토로> 중 '이웃집 토토로'
My Neighbor Totoro from <My Neighbor Totoro>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

<쥬라기 공원> 주제곡
Theme from <Jurassic Park>

<인디애나 존스> 중 '레이더의 행진곡'
Raider's March from <Indiana Jones and the Raiders of the Lost Ark>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중 '헤드위그의 주제'
Hedwig's Theme from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Program Notes

프로그램 노트

한스 짐머 Hans Zimmer

<다크 나이트> 중 '다크 나이트' 모음곡 (공동작곡 제임스 뉴튼 하워드)

The Dark Knight Suite from <The Dark Knight> (Co-composer James Newton Howard)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함께 했던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에서 한스 짐머는 이전과는 다른 음악을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에게 입혀주었다. 고담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도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배트맨에게 이 음악가는 리하르트 바그너가 그의 음악극 캐릭터에게 부여했던 라이트모티프와 같은 숙명을 입혀 들려준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의 음악을 모음곡 형식으로 재구성한 '다크 나이트' 모음곡은 브루스 웨인이 가장 배트맨다울 때의 순간을, 고담의 수호자인 어둠의 기사를 선명하게 만나게 한다.

<인셉션> 중 '타임'

Time from <Inception>

영원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이 가까스로 현실을 흐르기 시작하고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순간, 한스 짐머의 음악은 흐르기 시작한다. 영화 <인셉션>의 주제를 관통하는 작품이자 21세기 영화음악의 마스터피스인 'Time! 음악 구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곡은 짧은 동기를 끊임없이 반복, 확장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이 시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정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윽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청중의 감정까지 집어삼키는 음악 앞에서 우리는 경이를 느낄지도 모르겠다.

클라우스 바델트 Klaus Badelt

<캐리비안의 해적> 중 '블랙 펄의 저주' 모음곡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Suite from <Pirates of the Caribbean>

한스 짐머는 작곡가 문제로 난항을 겪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 펄의 저주>의 제작팀에게 연락 받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작업으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짐머는 대신 동료 작곡가인 클라우스 바델트를 적임자로 추천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프로젝트에 일부 할애했다. 상황이 이토록 복잡하게 물려 있었기에 시리즈를 대표하는 곡인 'He's a Pirate'를 비롯한 곡의 최종 크레딧은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한 클라우스 바델트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작품에서 바델트는 분명 한스 짐머의 영향 아래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지만 그만의 당당한 기세를 담아낸 스코어로 영화 음악사에 그 이름을 확실하게 남기게 되었다.



Program Notes

프로그램 노트

히사이시 조 Joe Hisaishi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교향적 변주곡

Symphonic Variation Merry-Go-Round from <Howl's Moving Castle>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는 그간 수차례 작업했음에도 히사이시 조는 베틀 끝에서 있는 느낌으로 매번의 작업에 임했음을 고백한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음악 작업을 할 때도 그랬다. 작품의 음악 콘셉트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히사이시 조는 안정적으로 준비한 첫 번째 음악을 선보인 뒤, 내심 채택되기를 바랐던 짧은 왈츠를 이후 연주하기 시작했다. 프로듀서 스즈키 토시오와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선택을 받았던 이 왈츠가 바로 지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인생의 회전목마'이다. 약간의 슬픔을 머금은 주제 선율이 제시된 뒤, 음악은 경쾌한 왈츠의 리듬을 타고 콘서트홀을 넘실거린다.

<마녀 배달부 키키> 중 '바다가 보이는 마을'

A Town with an Ocean View from <Kiki's Delivery Service>

이제 13살이 되었기에 수습 마녀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 키키. 수련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하지만 슬프기보다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그 이유를 이 어린 마녀는 알고 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뭐든 관찮을 거라고 키키는 생각한다. 이 음악이 사용되는 장면에서 히사이시 조는 영상음악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준다. 이야기가 펼쳐질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함께 바라보는 듯한 부드러운 음악, 풍경을 타고 흐르는 듯한 너그러운 선율이 키키의 미래를 밝게 비춰준다.

<이웃집 토토로> 중 '이웃집 토토로'

My Neighbor Totoro from < My Neighbor Totoro>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 아픔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한다. 아이들의 세계가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겠다고 관객이 생각할 때 즈음 토토로는 등장한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세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토토로. 그렇게 함께 씨앗을 심고, 나무 위로 올라가 마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약간의 위안을 얻게 된다. 밝은 멜로디의,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억 속에 잠겨 있던 추억을 꺼내게 하는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곡. '어린 시절에만 당신을 찾아오는'이라는 가사가 붙어 있던 음악은 오늘, 어느 새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상냥하게 말을 건네온다.

Program Notes

프로그램 노트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

<쥬라기 공원> 주제곡

Theme from <Jurassic Park>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연출의 영화 <쥬라기 공원>은 여러모로 호러 영화의 재질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메인 테마는 작품의 진정한 주제라 할 수 있는,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를 만났을 때의 경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호른의 솔로가 조용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이어지는 관현악은 이 미지의 공간에 도착한 이들과 함께 공원을 둘러본다. 이어 음악은 트럼펫이 제시하는 주제와 그 뒤를 유려하게 뒷받침하는 현악기의 사운드와 함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여 인류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생명체를 우러러본다.

<인디애나 존스> 중 '레이더의 행진곡'

Raider's March from <Indiana Jones and the Raiders of the Lost Ark>

자칫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를 결코 그렇지 않게 전달하는 능력, 이 거의 불가능한 재능을 존 윌리엄스는 타고났다. <스타워즈>와 <슈퍼맨>의 테마가 그랬던 것처럼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작품인 <레이더스>의 주제 선율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한, 존 윌리엄스만이 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제 탐험이 시작될 거야'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선언하는 첫 번째 주제와, 모험이 완전히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주제를 듣고 있으면 '이 영화에서는 음악도 모험을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중 '헤드위그의 주제'

Hedwig's Theme from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무엇이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를 불멸의 음악가의 위치로 올려 놓았을까? 한두 줄로는 답해내기 어려울 듯한 그의 업적을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주제인 '헤드위그의 주제'에 한정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존 윌리엄스는, 자신이 선택한 악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첼레스타의 소리로 시작해 스산한 바람 소리처럼 음악 이곳저곳을 휘젓는 현악기 사운드, 그리고 아직 잠에 들지 않은 새들처럼 밤을 울리는 목관악기 음색은 이 영화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마법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작품이 끝나려는 찰나, 작곡가는 끝자락에 짧은 코다를 마련해 음악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킨 뒤 화려하게 곡을 마무리한다.

Profiles

프로필



지휘 Conductor
데이비드 이
David Yi

지휘자 데이비드 이는 2020년부터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예술의전당과 2021년 3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퇴근길 토크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등 시민·교육 공연을 통해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되어 경기필하모닉, 국립합창단과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바덴 바덴 필하모니, 예나 필하모니, 테플리체 필하모니, 흐라데츠크랄로베 필하모니, 워터베리 심포니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다. 지휘자 정명훈, 티에리 피셔, 마르쿠스 슈텐츠, 성시연, 마크 스트링거의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했으며 지안카를로 게레로, 스티븐 로드, 데이비드 로버트슨, 이그나트 솔제니친의 어시스턴트 및 커버 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욕에서 태어나 음악가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는 독일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악대학에서 니콜라스 파스케를,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휴 올프를 사사했으며, 예일대학교에서 피터 운지안에게 지도를 받았다.



진행 MC
배순탁
Soon Tak Bae

- 음악 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 배순탁의 B사이드 진행자
-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방구석 1열 등 출연
- 시사인, 씨네 21,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매체에 기고

저서

배철수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청춘을 달리다

평양냉면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 (공저)

번역서

모던 팝 스토리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재단법인 독립 이후 정명훈 첫 음악감독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하였고,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를 거쳐 현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인 얀 판 츠베텐 지휘자가 2024년부터 제3대 음악감독으로 활동한다. 서울시향은 세계적 명성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공연을 통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서울시민의 클래식 음악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SPO Musicians & Staffs

◆ 수석 + 부수석 ++ 차석 | 2024년 3월 기준

음악감독

얀 판 츠베텐

수석부지휘자

피터 빌로엔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

부악장

웨인 린 신이라

제1바이올린

문주영* 한지연* 엄성웅*
주연경* 보이텍 짐보프스키**
허상미** 고희수 김민용
김민정 김혜연 두루미 송혜림
양유진 유미나 주연주 최해성

제2바이올린

임가진* 김수영** 정지혜**
곽승관 김미경 김미연 김영아
김용화 김인학 김지연 임자경
이주은 이혜미 조은주 진영규
최고은

비올라

강윤지* 구이삭 김선영 강정은
김예진 매일 김 성민정 안톤강
이선주 이형은 임요섭 홍지혜

첼로

최혜안* 김민경 김소연 박우일
박은주 변현정 신애경 이혜재
장소희 차은미 최운선

더블베이스

안동혁* 이영수* 강인한
김진철 이충석 장승호 조정민
한민아

플루트

박지은* 송연화 장신아

오보에

이미상* 이연주* 류경균
하수민

클라리넷

임상우* 이창희 정은원

바순

곽정선* 장명규* 정수은
최종선

호른

이세르게이* 김병훈 최운

트럼펫

제프리 홀브룩* 닐스 하이도우

트롬본

제이슨 크리마* 노영남
김태훈(베이스트롬본)

튜바

지승렬

타악기

에드워드 최* 김민홍 김미연

하프

박라나

악보위임

김진근 김보람

악기위임

김규호 선우영

경영본부

대표이사

손은경

경영본부장

박소정

기획협력팀

차민호 김유나 백지혜

경영지원팀

강성욱 이철희 황호연 최준혁
윤태후 심지은 조형남

공연사업팀

최유진 백난야 한지현 김미래
최현미 박경미 이부윤

사회공헌팀

조윤희 박찬연 강성현 장보라
장지희 장수빈

홍보마케팅팀

윤경환 윤수연 노민연 이채운
지민희 김민선 김준영

감사역

송한선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 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마곡지구에서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배지훈

LG아트센터 서울 고객 만족도 조사

관객 여러분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 4.30(화)

기프티콘 발송일 5.3(금) 이후 순차 발송

* 본 설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참여인원 마감 시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LG아트센터장

이현정

공연기획팀

팀장 신민경

김주연 김다솜 송수찬 김호연 정서영

대관 · 하우스

김철원 허윤정 노유진 옥가희

홍보마케팅팀

팀장 김지인

한동희 오경은 오지수 이혜리

디자인

신미현

티켓

배윤정 류선주 김나연 김아영 김세은 김수정

운영팀

팀장 양영수

김재윤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안태훈 염인호

무대기술팀

팀장 엄성기

무대

홍지웅 황성한 송경근 배완수 박승철 심성훈
이유리

조명

전명진 류대경 류한경 이준현 손나래

음향

이범훈 엄준석 김현주 오성범

제작지원

무대 크루

이광익 박태진

피아노 조율

이진우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
장입니다.

Sponsored by

LG SIGNATURE

Augustin Hadelich
plays

Sibelius' Violin Concerto

하델리히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①②

Nielsen,
Maskarade Overture

닐센, <가면무도회> 서곡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Nielsen,
Symphony No. 5, Op. 50, FS 97

닐센, 교향곡 제5번

지휘 conductor

유카페카 사라스테 Jukka-Pekka Saraste

바이올린 violin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Augustin Hadelich

2024. 4. 25. — 26.

목-금. 오후 8시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Thursday, 25th — Friday, 26th

April, 2024, 8 pm

LOTTE Concert Hall

20년의 판타지라이프,
‘마비노기’의 OST를 재즈로 듣는다!



문경진/조재우/타니 ©

마비노기

자라섬재즈빅밴드

L I V E



5.1 수 2pm & 6pm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MABINOGI Jarasumjazz Big Band Live



서울시립교향악단 X LG아트센터



더욱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QR Code

